

HMW

어떻게 하면
출력된 식당
목록이
내 입맛에 맞게
정렬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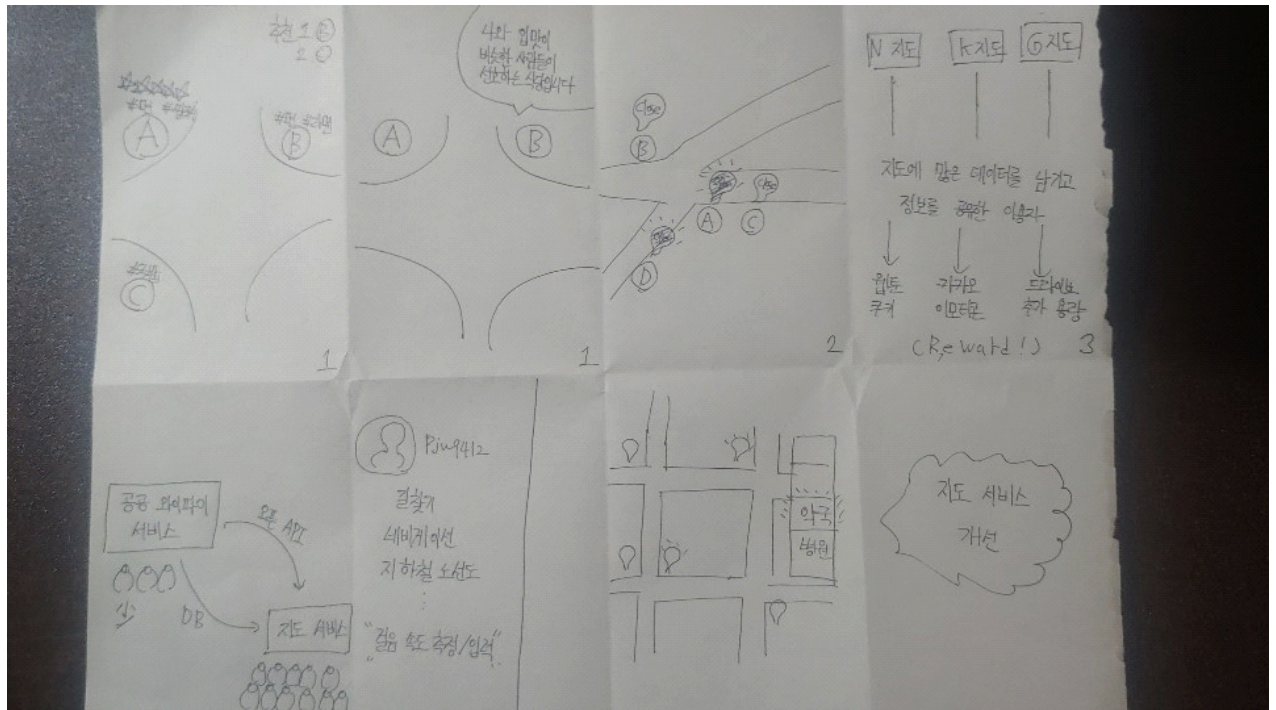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현재
영업 중인
식당들만
표시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지도 내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른
도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병원과 약국 정보를
표시할 때 당직 병원,
당직 약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출력된 식당 목록이 내 입맛에 맞게 정렬될까?

-> 큐레이션 서비스의 메커니즘을 차용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식당을 방문하고 평점을 매겼을 때 쌓이는 입맛 데이터로 사용자 입맛에 맞게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나와 입맛이 비슷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식당은 내 입맛에도 맛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식당마다 여러 개의 키워드를 부여하고, 내가 좋게 평가한 키워드가 많은 식당 순으로 정렬하면 내 입맛에 맛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영업중인 식당들만 표시될 수 있을까?

-> 해당 장소에 기재된 영업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지도에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 기능에 효용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아질수록, 해당 업장의 소유자는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변동될 시 지도에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는 식당이 영업 시간을 배달 앱에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편인데,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식당에 대한 데이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을 때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얻습니다. 지도에 데이터를 남길 때도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게끔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를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점수와 배지를 수여하고, 이 지도에 공헌한 사람의 목록을 순위화하여 명시합니다. 지도사의 다른 영역(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지도에 남길수록, 맞춤형 지도가 되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장소를 추천하는 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는 기꺼이 자신의 정보를 지도에 공유할 것입니다.

지도 내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 지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3대 이동통신사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지도를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픈 API와 DB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지도 서비스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 와이파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도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 많은 피트니스 앱에서는 휴대폰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도보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 서비스에서도 좀 더 정확한 길찾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도보 속도를 측정하고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병원과 약국 정보를 표시할 때 당직 병원, 당직 약국을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 약국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국의 약국에서 일괄적으로 사용되는 DUR 관리 시스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영업 중인 지 아닌지를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